

아동의 감각추구성향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Children's Sensation Seeking,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

동의대학교 아동·가정환경학과
교수 정현희
신라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오미경

Dept. of Child and Family Environment, Dong-Eui Univ.

Prof. : Jeong Hyeon-Hee

Dept. of Child Development, Silla Univ.

Lecturer : Oh Mi-Ky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among children's sensation seeking,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 The subjects were 470 5th and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Pusan, Korea. Zuckerman's questionnaire on sensation seeking(1994), Park, Young Yae's questionnaire on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s(1995) and Kim Hye Ryun's questionnaire on children's maladjustment behavior(1993) were u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According to sex,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nsation seeking scores, the aggressive behavior scores and distracted behavior scores. The boys got higher scores than girls in sensation seeking scores, and also in aggressive behavior scores and distracted behavior scores. (2)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ensation seeking scores and the aggressive behavior scores for

both boys and girls. And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ensation seeking scores and the distracted behavior scores for both boys and girls. (3) Both sensation seeking and maternal child rearing behavior predicted aggressive behavior and distracted behavior for both boys and girls. For boy's aggressive behavior, sensation seeking and maternal child rearing behavior explained 8%, 8%, respectively. For boy's distracted behavior, sensation seeking explained 5%. And for girl's aggressive behavior, sensation seeking and maternal child rearing behavior explained 27%, 9%, respectively. For girl's distracted behavior, sensation seeking and maternal child rearing behavior explained 28%, 7%, respectively. The sensation seeking variable was the important predictor influencing on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and distracted behavior.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in terms of sensation seeking and socializa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반적으로 아동기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따른 문제, 다른 아동들과의 빈번한 상호작용으로 인한 또래 문제,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및 학습문제 등 사회·정서적 어려움 등이 새롭게 부각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많은 아동들은 일정한 기준에서 이탈된 행동으로 정의되는 문제행동을 갖는다. 한 예로, 국내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해련 등(1991)의 연구에서 정서·행동상의 문제를 가진 아동의 비율이 일반 아동의 10%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근래에 더 증가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선경·이재연, 1998)고 한다. 사실상 이러한 아동기의 문제행동들은 나이가 들면서 심각한 장애로 진전되거나 다른 행동문제를 야기시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아동기는 문제의 표현과 증상이 청소년기만큼 현저하지 않고, 유아기처럼 불안과 동요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쉽게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가정을 벗어나 보다 넓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여러 유형의 다양한 행동들을 접하고 습득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행동들은 적응 여하에 따라 긍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부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

기도 하여 사실상 교정 가능성이 큰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론은 개인의 유전적, 생물학적 측면을 강조하는 생물학적 이론과 특수한 성격이 비행이나 문제행동과 관련있다고 보는 심리학적 이론, 그리고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구조와 통제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사회학적 이론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생물학적 요인보다는 심리학적 또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정환경 및 사회적 환경 등 개인이 속한 환경에 초점을 맞춘 사회학적 이론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최근 방법론의 발달로 인해 타고난 유전적 생물학적 특성이나 기질적 특성이 아동의 정서·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Kochanska, 1993). 극단적으로 Rowe(1994)같은 학자는 아동의 지능이나 인성 그리고 정신병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양육태도나 환경적 요인들은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아동발달에 있어 일차적으로 가족의 중요성을 주장해온 기존의 연구들에 도전하고 있는데, 감각추구성향에 관한 연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감각추구성향은 생물학적 특성으로 주로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위험행동을 설명하는 영향력있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는 '신기하고 강한 경험을 추구하려는 성향'이다.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감각추구성향이 낮은 사람보다 새로운 자극이나 보

다 강렬한 감각적 자극을 즐기기 위하여 기꺼이 위험한 행동이나 비행에 참여하게 된다고 보았고, 감각추구성향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음주, 약물사용, 폭주, 성행위 등)을 설명하는 영향력있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오미경, 1997a, b).

한편, 감각추구성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생물학적 요소로 간주되는 감각추구성향이 발달적으로 청소년기에 가장 우세하게 나타나는 특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각추구성향이 생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청소년기 이전의 문제행동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아동기의 문제가 청소년기에 이르러 문제의 강도가 더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큰데, 청소년기 이전 시기인 아동기에 치료적으로 개입한다면 문제행동 감소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아동기 문제행동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에 관한 논리적 근거는 Amett(1994)의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감각추구성향은 타고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성향이 표현될 가능성은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어느 방향으로 유도되느냐에 따라 반사회적 행동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창의성, 지도성 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감각추구성향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아동문제행동에 대한 감각추구성향 및 양육태도의 상대적 설명력을 밝혀보고자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감각추구성향에 남녀의 차이가 보고되고 있고(오미경, 1997; Daizman & Zuckerman, 1980 ; Zuckerman, Eysenck, & Eysenck, 1978 ; Murphy, Wright, Buchsbaum, Nichols, Costa & Wyatt, 1976), 양육태도에 있어서는 연구들 간에 성차에 대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성차에 대해서도 보고자 한다.

한편, 일정한 기준에서 이탈된 행동으로 정의되는 아동의 문제행동은 위축행동, 불안행동, 공격행동,

과잉행동, 퇴행행동의 다섯가지 행동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문제행동을 이렇게 분류한 근거로는 여러 연구들(권영옥, 이정덕, 1999)에서 위의 다섯가지 행동이 아동기에 빈번히 일어나는 행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2. 연구문제

위에서 진술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성별에 따라 감각추구성향 및 아동의 문제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감각추구성향 및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상관이 있는가?

셋째, 감각추구성향 및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증속변인인 문제행동과 독립변인인 감각추구성향 및 어머니 양육태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모두 고찰하여야 할 것이나, 어머니 양육행동이나 문제행동에 관한 부분은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다루어져 왔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감각추구성향의 개념과 감각추구성향과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에 한정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감각추구성향의 개념

감각추구성향은 다양하고 신기하며, 복잡한 감각과 경험을 추구하려는 욕구로 이런 경험을 위하여 신체적이고 사회적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행동을 포함한다(Zuckerman, 1979b). Zuckerman (1974a)은 이러한 감각추구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기초하여 적정한 흥분 혹은 자극 수준에서의 개인차를 평가하기 위하여 감각추구 척도(sensation seeking scale: SSS)를 개발하였다.

감각추구성향 척도에는 4가지 하위척도가 있다. 4 하위척도는 긴장과 모험추구로 수상스키나 산 오르기 같은 신기하고 강력한 오락에 참여하려는 성향, 탈억제로 여러 사람과 어울려 술마시거나 시끄럽고 떠들썩한 모임을 즐기거나 성적 태도, 지루함과 민감성으로 반복되는 일이나 판에 박힌 일, 흥미없는 사람에 대한 개인적 혐오, 그리고 경험추구로 여행에 대한 욕구나 비범한 경험에 대한 추구이다.

Zuckerman의 척도가 개발된 후 감각추구성향은 음주, 약물중독, 강박증상, 성적 경험과 관련하여 연구(Daizman & Zuckerman, 1980 ; Zuckerman, Eysenck, & Eysenck, 1978 ; Murphy, Wright, Buchsbaum, Nichols, Costa & Wyatt, 1976)되어왔고, 이러한 행동들을 설명하는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감각추구성향은 연령, 성, AEP(Average Evoked Potential: 외부적인 자극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측정치) 및 MAO(Monoamine Oxidase: 신경자극전달부의 민감도와 관련있는 효소)와 관련성이 보고되면서 하나의 생물학적인 특성으로 보고되고 있다(Zuckerman, 1979b ; Zuckerman, 1994).

그러나 최근 Amett(1994)는 Zuckerman의 정의와 척도에서 몇 가지 제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정의와 척도를 개발하였다. 즉 Zuckerman의 개념에서 자극의 복잡성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복잡성 개념대신 강도 개념을 주장하였다. 또한 감각추구성향은 개인의 인성과 사회화환경에 따라 반사회적 행동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성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더불어 격렬한 신체활동이 들어가는 항목에서는 연령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Amett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고 Amett의 새로운 정의에 따라 감각추구성향을 신기하고 강력한 경험을 추구하려는 성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감각추구성향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생물학적 특성인 감각추구성향은 발달적으로 청

소년기에 가장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많은 연구들이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동기와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인용하고자 한다. 감각추구성향은 주로 흡연, 음주, 운전습관, 도박, 성행동, 여행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흡연과 감각추구성향간의 관계 연구(Zuckerman, Ball & Black, 1990)를 보면 감각추구성향에서 흡연가와 비흡연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또한 흡연의 위험에 대한 인식 증가에 따라 사람들은 과거보다 담배를 덜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각추구성향과 흡연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남녀 모두 높은 감각추구성향집단의 흡연비율이 낮은 감각추구성향집단에서의 흡연비율보다 더 적게 감소하였다.

제한속도의 도로에서 운전습관과 감각추구성향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Zuckerman & Neeb, 1980 ; Amett, 1991 ; Heino, Van der Molen, Wilde, 1992 ; Furnham & Saipe, 1993)에서도 운전속도와 감각추구성향 점수간에 유의한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연령이 통제되었을 때에도 유의미했다. 즉 높은 감각추구성향 점수를 나타낸 사람은 더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높은 감각추구성향의 운전자는 낮은 감각추구성향 운전자보다 사고를 더 많이 내며 음주운전 사고를 더 많이 낸다고 보고되고 있다(Zuckerman, 1994 ; Furnham & Saipe, 1993 ; Heino, 1992).

기타 범죄행위나 도박행위도 감각추구성향과 관련을 보인다. Horvath와 Zuckerman(1993)의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 의하면, 감각추구성향 점수는 비록 심각한 범죄는 아닐지라도 실제적인 범죄행동과 높은 관련을 보였다.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Kafrey(1982)는 6-10세의 아동에게 성냥을 가지고 놀기, 또래 혹은 어른을 때리기, 흠치기, 무단결석하기와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아동의 그림을 보여 주면서, 이 그림 중 그들이 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을 지적하라고 하였다. 감각추구성향 점수와 아동들 스스로가 했다고 보고한 반사회적 행동은 유의하게

관련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로 보건데, 문제행동과 감각추구성향간의 관계는 상당히 일찍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도박행위 역시 감각추구성향의 좋은 지표로 인식되고 있고(Zuckerman, 1974), 감각추구성향과 내기의 크기 및 내기의 양간에 상관을 나타내었다(Dahlback, 1990). Anderson과 Brown(1984)은 도박가들에게 그들이 왜 도박을 했는가의 질문에서 “돈을 따기 위하여” 도박을 했다는 보고보다 “즐기기 위하여” 혹은 “재미를 위하여” 혹은 “흥분을 위하여”라는 대답이 월등히 높음을 보고했다.

위험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이 따르는 여행 및 이민 역시 감각추구성향과 관계가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낮은 감각추구성향자들은 여행할 때 조심스럽게 여행을 계획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사건이 없도록 준비를 한다. 휴가를 보낼 때도 매년 같은 장소로 간다. 반면에, 높은 감각추구성향자들은 색다른 장소로 여행하기를 좋아하며, 여행을 하면서 충동적으로 여행스케줄을 변경하기도 한다(Zuckerman, 1979b). 환경에서의 변화가 비교적 영구적인 이민의 연구(Jacobs & Koepfel, 1974 : Winchic & Carment, 1988)에서도 감각추구성향정도가 이민 의도와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감각추구성향과 위험행동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비교적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소재 3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4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의 표집에서 가정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운대구, 동래구, 금정구에서 초등학교 1개교씩 유의표집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서 아동의 성별, 부모의 교육정도, 아버지의 직업유형, 어머니의 직업유무를 보았고,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대상자 부모의 교육정도를 보면 아버지의 경우 고졸이상이 대다수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어머니의 경우 역시 고졸이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버지의 직업유형은 서비스업, 자영업, 회사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어머니의 직업유무를 보면 직업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다소 높음을 볼 수 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아동의 감각추구성향,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문제행동 척도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구 분	빈도(%)	총 계	변 인	구 분	빈도(%)	총 계
성 별	남	166(53.2)	312	아버지 직업	노무, 기능직	35(14.8)	236
	여	146(46.8)			서비스, 자영	83(35.2)	
아버지 교육수준	중졸이하	14(5.9)	235		회사원	90(38.1)	
	고졸	103(43.8)			전문, 관리	28(11.9)	
	대졸이상	118(50.2)		수 입 정 도	100이하	27(11.4)	237
어머니 교육수준	중졸이하	28(12.1)	100-150		66(27.8)		
	고졸	123(53.2)	150-200		46(19.4)		
	대졸이상	80(34.6)	200-250		45(18.9)		
어머니 직업유무	유	99(41.9)	236		250-300	19(8.0)	
	무	137(58.0)		300이상	34(14.3)		

이며 보다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감각추구성향

아동의 감각추구성향은 Zuckerman(1994)의 질문지를 바탕으로 용어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용은 '만약 무료로 달이나 다른 별에 가 볼 수 있다면 가고 싶다', '나는 긴 줄을 기다려야 한다면 참을 수 없다', '나는 놀이 공원에서 청롱열차나 바이킹같은 스릴있는 탈 것을 좋아한다', '부드럽고 조용한 음악보다는 활발한 음악을 크게 듣는 것이 좋다'와 같이 신기하고 강한 감각을 추구하려는 욕구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감각추구성향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아주 그렇다'의 4점 리커트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감각추구성향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에 의한 Cronbach의 α 계수 .72로 비교적 신뢰로운 수준이었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박영애(199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Schaefer의 차원론적 개념체계 및 하위척도구성을 기초로 하여 국내외의 양육척도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박영애의 측정도구는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구성된 도구로서,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의 Cronbach α 신뢰도는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이 .83, .89, .67이었다. 4점 리커트식 척도이며,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도록 구성되어 있다.

3)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 측정은 김혜련(1993)의 측정도구를 평가방법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즉 김혜련의 검사 체점은 '예', '아니오'의 선택으로 되어 있고, 긍정적인 내용의 진술 문항인 경우 응답이 "예"일 때 1점을 "아니오"일 때 0점을 주었으며, 부정적인 내용의 진술문항인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채점하였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4점 리커트식으로 수정하였다.

아동문제행동은 5개의 요인 즉, 공격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과잉행동, 퇴행행동으로 변인을 선정하여 각 요인마다 10개의 문항씩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측정도구는 아동 평정용이다. Cronbach α 계수를 보면 공격행동이 .89, 불안행동 .75, 위축행동은 .80, 산만행동 .78, 퇴행행동 .69이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본 조사는 담임 선생님의 사전 양해 하에 실시하였다. 소요 시간은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 대상 470명 아동의 자료에서 부실 기재를 제외한 312명의 자료를 본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어머니용과 아동용이 모두 회수된 경우에만 분석에 사용되었으므로 설문지 손실이 많았음)

이상에서 얻은 자료는 SPSS 를 사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통계처리를 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평균, 표준편차, t-test,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위계적 회귀분석 등의 통계처리방법이 사용되었다.

IV. 연구 결과

연구문제별로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감각추구성향 및 문제행동의 차이
아동의 감각추구성향 및 문제행동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아(M=264)의 감각추구성향이 여아(M=252)의 감각추구성향보다

<표 2> 성별에 따른 아동의 감각추구성향의 차이

성별	N	M	SD	t
남	132	2.64	.42	2.45**
여	137	2.52	.37	

** $p < .01$

〈표 3〉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

문제행동	남			여			t
	N	M	SD	N	M	SD	
공격	145	2.21	.50	121	2.04	.53	2.73**
불안	155	2.37	.63	137	2.41	.59	.60
위축	162	1.96	.62	140	1.94	.57	.37
산만	160	2.22	.58	141	2.24	.58	.25
퇴행	158	2.00	.57	140	2.06	.51	.86
문제행동전체	124	2.17	.44	104	2.11	.40	1.05

** $p < .01$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감각추구성향과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성별이 감각추구성향에 미치는 요인을 통제하고 순수한 감각추구성향과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통계처리는 남녀 각각 따로 구분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 분석에서 남녀 따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문제행동 중에서 공격행동에서만 남녀간에 차이가 인정되었다. 즉, 남아(M=2.21)는 여아(M=2.04)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문제행동에서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감각추구성향 및 양육행동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감각추구성향과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상관을 보면 문제행동의 하위변인에 따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아의 경우, 감각추구성향과 공격행동($r = .32, p < .001$) 및 산만행동($r = .28, P < .001$)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남아와 마찬가지로 감각추구성향과 공격행동($r = .50, p < .001$) 및 감각추구성향과 산만행동($r = .39, p < .0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여아의 경우 감각추구성향과 공격 및 산만행동간의 관계는 남아의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문제행동과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보면 거부·제재행동과 남아의 위축행동($r = .21, p < .05$), 여아의 산만행동과 거부·제재행동($r = .31, p < .001$)이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허용·방임행동과 남아의 문제행동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고, 여아의 공격, 위축, 퇴행행동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남아의 문제행동과는 거의 관계가 없었고, 여아의 문제행동에 어머니의 허용·방임행동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감각추구성향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설명력

감각추구성향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단계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에서 감각추구성향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고 2단계에서 양육행동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설명력이 나타난 문제행동만을 제시한 결과는 〈표 5〉, 〈표 6〉, 〈표 7〉, 〈표 8〉에 있다.

〈표 5〉에 제시된 남아의 공격행동에 대한 감각추구성향과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보면, 감각추구성향과 양육행동 모두가 남아의 공격행동을 설명하는

〈표 4〉 감각추구성향 및 양육행동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감각추 구성향	양 육 행 동			문 제 행 동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입	공격	불안	위축	산만	퇴행	전체	
양 육 동	온 정 용	-.08 (-.10)	1.00								
	거 부 제	-.13 (.11)	-.31*** (-.22*)	1.00							
	허 용 방 입	.02 (-.06)	-.17 (-.01)	.33*** (.38***)	1.00						
문 제 동	공 격	.32*** (.50***)	-.07 (-.00)	.16 (.06)	.13 (.27***)	1.00					
	불 안	.08 (.09)	-.01 (-.07)	-.10 (.01)	.08 (.19)	.36*** (.43***)	1.00				
	위 축	.03 (-.06)	.00 (-.11)	.21* (.17)	.11 (.21*)	.35*** (.18*)	.42*** (.42***)	1.00			
	산 만	.28*** (.39***)	-.13 (-.06)	.10 (.31***)	.06 (.22*)	.67*** (.70***)	.46*** (.39***)	.26*** (.26**)	1.00		
	퇴 행	.07 (.06)	.02 (-.03)	.16 (.07)	.01 (.19*)	.38*** (.35***)	.58*** (.42***)	.50*** (.47***)	.44*** (.44***)	1.00	
평 균	2.63 (2.52)	3.14 (3.13)	2.18 (2.16)	1.95 (2.00)	2.21 (2.04)	2.37 (2.40)	1.96 (1.94)	2.22 (2.24)	2.00 (2.06)	2.17 (2.11)	
표준편차	.42 (.37)	.39 (.39)	.46 (.51)	.51 (.52)	.50 (.53)	.63 (.59)	.62 (.57)	.58 (.58)	.57 (.51)	.44 (.40)	

* p < .05, ** p < .01, *** p < .001

()는 여아

〈표 5〉 남아의 공격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단계	변인	B	β	R ² 변화량	R ² 누적량	F
1단계	감각추구성향	.43	.33**	.08	.08	4.68*
2단계 (양육행동)	온정·수용	.24	.19			
	거부·제재	.28	.26	.08	.16	2.46*
	허용·방입	.02	.03			

* p < .05

〈표 6〉 남아의 산만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단계	변인	B	β	R ² 변화량	R ² 누적량	F
1단계	감각추구성향	.36	.24*	.05	.05	3.43*
2단계 (양육행동)	온정·수용	.02	.01			
	거부·제재	.25	.20	.03	.08	1.39
	허용·방입	-.10	-.09			

* p < .05

<표 7> 여아의 공격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단계	변인	B	β	R ² 변화량	R ² 누적량	F
1단계	감각추구성향	.71	.55***	.27	.27	26.32***
2단계 (양육행동)	온정·수용	.08	.06	.09	.36	9.70***
	거부·제재	.07	-.06			
	허용·방임	.35	.32***			

*** p< .001

<표 8> 여아의 산만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단계	변인	B	β	R ² 변화량	R ² 누적량	F
1단계	감각추구성향	.72	.52***	.28	.28	30.35***
2단계 (양육행동)	온정·수용	.04	-.03	.07	.35	10.24***
	거부·제재	.19	.17			
	허용·방임	.17	.15			

*** p< .001

정도는 16%였다. 그 중 감각추구성향이 8%를 설명하였고, 양육행동 전체가 8%를 설명하였으나 양육행동 하위변인 각각이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남아의 산만행동(표 6)에 대한 감각추구성향과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보면 감각추구성향이 남아의 산만행동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5%였고, 양육행동 하위변인 각각이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정도는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여아의 공격행동(표 7)에 대한 감각추구성향과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보면 감각추구성향과 양육행동 전체가 여아의 산만행동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남아의 공격성을 설명하는 설명력(16%)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인 36%로 나타났다. 그 중 감각추구성향이 27%를, 양육행동 전체가 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아의 경우와는 달리 양육행동 하위변인들 중 특히 허용변인은 여아의 공격행동을 유의하게($\beta=.32, P<.001$) 설명하는 변인이었다. 즉, 감각추구성향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허용적 태도를 보일수록 여아의 공격성은 더 커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아의 산만행동에 대해 감각추구성향과 양육행

동 전체가 설명하는 정도는 남아의 산만행동을 설명하는 설명력(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35%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 감각추구성향이 28%를, 양육행동 전체가 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행동 하위변인 각각이 설명하는 설명력은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감각추구성향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각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감각추구성향의 차이에서는 예측한 바와 같이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각추구성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감각추구성향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본 오미경의 연구(1998)나 외국의 연구와도 일치된 결과이다. 청소년의 연구는 이 시기 남아의 테스토스테론 수준이 높아 감각추구성향에서 남학생이 더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기는 남아

가 여아보다 테스토스테론이 더 높다는 보고가 없다. 그럼에도 결과는 같았다. 다른 생물학적 요인이나 기질의 영향인지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이런 제안은 유아기 남아가 여아보다 더 과활동성과 과잉행동을 보인다는 연구(Rubin, Fisher, 1983)에서도 제안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에 있어서는, 공격행동에서만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공격행동의 성차이는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연구들이 많다. 즉, 공격적 행동은 성호르몬에 영향을 받으며(Frodi, A., Macaulay, J., Thome, P. R., 1977), 성역할 사회화에 의해 중재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의 연구결과들은 성호르몬의 영향에 의해 남아들은 더 높은 수준의 공격행동이 나타난다고 (정옥분, 1999)보고하고 있다.

다른 문제행동에 있어서는 남녀간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가 평가한 아동의 행동문제에서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권영옥, 이정덕(1999)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에는 생물학적 기질과 호르몬, 사회화의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산만, 불안, 퇴행 등에 대해서도 기질, 호르몬 분비, 양육태도, 형제관계 등의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남녀의 성에 따른 교육의 차이, 양육행동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많이 줄어든 결과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감각추구성향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남녀 모두 감각추구성향과 공격행동 및 감각추구성향과 산만행동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그 외의 문제행동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감각추구성향이 신기하고 강한 경험을 추구하려는 성향이라는 점에서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사람은 보다 다양하고, 모험적인 행동을 추구하리라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보다 충동적이며 산만하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현 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감각추구성향과의 관계에서 유의성을 보이지 않은 불안, 위축, 퇴행행동은 이 문제행동 자체가

새로운 활동을 추구하려는 성향과는 관련이 없는 행동들이므로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론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오미경, 1997ab)와 다른 점은 감각추구성향과 공격행동 및 산만행동간의 관계에서 남아보다 여아의 경우 좀 더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성역할개념과 관련하여 해석될 수 있는데, 여학생들에게도 자기주장, 적극성 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여학생에게 더 두드러지게 표현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래의 초등학교에서 여아들의 행동이 남아들보다 더 적극적이고 주장적이며 공격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정현희, 최경순, 1998)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또 다른 해석은 남녀간의 성장속도와 관련하여 해석될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여아의 성장 발달이 남아의 성장 발달을 초과하게 된다. 그리고 발달적으로 사춘기는 감각추구성향이 일생에서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여아는 남아보다 감각추구성향의 수준이 높아 활동적이고, 적극적이 되므로 이것이 공격적인 행동이나 산만한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감각추구성향에 대한 발달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양육행동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태도와 위축행동간의 관계에서만 유의한 낮은 상관이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문제행동간의 상관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여아의 경우는,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태도와 여아의 문제행동이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허용·방임과 공격행동, 허용·방임과 위축행동, 허용·방임과 산만행동, 허용·방임과 퇴행행동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태도와 산만행동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성의 부모자녀간에 양육행동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Gecas, 1971)나 남아보다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박영애, 1995)와 비교해서 해

석될 수 있다. 또한 여아들은 여가활동을 주로 집에서 하는 반면, 남학생들은 사회적으로 좀 더 활발하며, 활동의 장이 가정보다는 가정 밖이고, 가정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고한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2)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보아 남아보다 여아가 어머니 양육태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특히 허용·방임 태도와 여아의 여러 문제행동간에는 상관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동양문화에서 부모의 과잉보호나 통제를 부모의 애정과 연관시키는 반면 부모의 허용과 방임은 부모의 무관심으로 여겨져 아동의 부정적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연구(Rohner, Pettengill, 1985)나, 어머니가 유아의 행동에 반응을 안 보일 때 유아의 행동억제(inhibition)는 낮아진다는 연구(박성연, 1998), 또한 방임형 양육이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Steinberg, Lamborn, Darling, Mounts, & Dornbusch, 1994)의 결과에 비추어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태도와 여아의 문제행동간의 상관을 해석할 수 있다.

세제, 문제행동에 대한 감각추구성향과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공격행동과 산만행동에 대해서만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남아보다 여아에게 있어 감각추구성향의 설명력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감각추구성향이 남아, 여아 모두의 공격적 행동이나 산만행동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임이 밝혀주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 아동문제행동의 원인을 밝힌 여러 연구들이 부모의 양육태도나 사회적 환경을 강조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아의 경우 공격행동과 산만행동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감각추구성향이 설명하고 있어 여아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유용한 변인임이 명백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육행동 역시 남아보다는 여아의 문제행동을 좀 더 잘 예언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양육행동이 남아보다는 여아의 문제행동을 좀 더 잘 설명하는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문제행동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변인에 있어서 남녀간에 어떤 차이가 있

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오미경(1997b)의 연구결과에 의해 뒷받침된다. 오미경의 연구에서 남학생의 위협행동은 친구의 설명력이 가족의 설명력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위협행동에서는 가족의 설명력과 친구의 설명력이 유사하였다. 또한 남학생의 위협행동을 중재하는 가족변인은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남아와 여아의 문제행동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발달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결과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에 일반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보다 명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많은 경험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나 사회적 환경에 그 원인이 있음을 강조해온 지금까지의 경향과는 달리, 아동의 문제행동을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설명하였다는 점과 남아와 여아 문제행동에 대한 다른 사회화기제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아동은 이러한 특성이 표현될 가능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교육적 중재 또는 궁극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자극을 제시하는 사회화과정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강봉규(1988). 교육심리학. 형설출판사.
- 2) 고미자(1989). 국민학교 아동의 문제행동 요인에 관한 고찰. 목포대학논문집 16.
- 3) 권영옥, 이정덕(1999). 부부갈등과 아동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2
- 4) 김청수(1991). 국민학교 학생의 문제행동 원인 분석에 관한 조사 연구.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김혜련(1993).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박성연(1998). 영아기 정서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3세 아동의 행동억제. 대한가정학회지,

- 36-4, 19-31.
- 7) 박영애(1995).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이즌중감과의 관계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8) 박옥자(1996). 초등학교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학생, 부모 및 교사의 인식 비교.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오미경(1997a).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위험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8권 1호, 109-123.
 - 10) 오미경(1997b). 감각추구성향과 사회화 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11) 이선경, 이재연(1998).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의 이론적 과정 모델. 아동학회지, 19-2, 49-64.
 - 12) 이혜련, 오경자, 홍강의, 하은혜(1991). 문항분석을 통한 한국판 CBCL의 임상유용도 검증.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2-1, 138-149.
 - 13) 정옥분(1999). 청년발달. 학지사.
 - 14) 정현희, 최경순(1997).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내외통제성,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5, 163-175.
 - 15) Anderson, G., & Brown, R. I. (1984). Real and laboratory gambling, sensation seeking and arousal.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75, 401-410.
 - 16) Andrucci, G. L., Archer, R. P., Pancoast, D. L., & Gordon, R. A. (1989). The relationship of MMPI and sensation seeking scales to adolescent drug us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3, 253-266.
 - 17) Arnett, J. (1990). Drunk driving sensation seeking and egocentrism among young adults aged 23-27.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1305-1313.
 - 18) Arnett, J. (1991). Still crazy after all these years: Reckless behavior among young adults aged 23-27.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1305-1313.
 - 19) Arnett, J. (1992). Reckless behavior in adolescence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Review*, 12, 339-373.
 - 20) Arnett, J. (1994). Sensation seeking : A new conceptualization and a new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2), 289-296.
 - 21) Daitzman, R. J., & Zuckerman, M. (1980). Disinhibitory sensation seeking personality, and gonadal hormon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 103-110.
 - 22) Dahlback, O. (1990). Criminality and risk tak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 265-272.
 - 23) Donovan, D. M., Queisser, H. R., Salzberg, P. M., & Umlauf, R. L. (1985). Intoxicated and bad drivers: Subgroups within the same population of high-risk men driver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6, 375-382.
 - 24) Frodi A., Macaulay, J., & Thome, P. R. (1977). Are woman always less aggressive than man? *Psychological Bulletin*, 84, 634-660.
 - 25) Furnham, A. F., & Saipe, J. (1993). Personality correlates of convicted drivers. *Personality of Individual Differences*, 14, 329-336.
 - 26) Gecas, V. (1971). Parental behavior and dimentions of adolescent self-evaluation. *Sociometry*, 34, 466-482.
 - 27) Heino, A., van der Molen, H. H., & Wilde, G. J. S. (1992). Risk homeostatic processes in car-following behaviour: Individual differences in car-following and perceived risk. *Traffic Research Center monograph VK 92-02*. Groningen, the Netherlands: University of Groningen Press.
 - 28) Horvath, P., & Zuckerman, M. (1993). Sensation seeking, risk appraisal, and risky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41-52.
 - 29) Jacobs, K. W., & Koepfel, J. C. (1974). Psychological correlates of the mobility decision. *Bulletin of the Psychonomic Society*, 3, 330-332.
 - 30) Kafry, D. (1982). Sensation seeking of young 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 161-166.
 - 31) Kochanska, G.(1993). Toward a synthesis of

- parental socialization and child temperament in early development of conscience. *Child Development*, 64, 325-347.
- 32) Murphy, D. L., Belmaker, R. H., Buchsbaum, M., Wyatt, R. J., Martin, N. F., & Ciaranello, R. (1977). Biogenic amine related enzymes and personality variations in normals. *Psychological Medicine*, 7, 149-157.
- 33) Murphy, D. L., Wright, C., Buchsbaum, M. S., Nichols, A., Costa, J. L., & Wyatt, R. J. (1976). Platelet and plasma amine oxidase activity in 680 normals: sex and age differences and stability over time. *Biochemical Medicine*, 16, 254-265.
- 34) Perez, J., & Torrubia, R. (1985). Sensation seeking and antisocial behavior in a student samp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 401-403.
- 35) Rohner, R. P., & Pettengil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36) Rubin, R. R., Fisher, J. J. (1983). *Your Toddler*. New York : MacMillan
- 37) Schooler, C., Zahn, T. P., Murphy, D. L., & Buchsbaum, M. (1978).
- 38) Psychological correlates of monoamine oxidase activity in normal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6, 177-186.
- 39) Steinberg, L., Lamborn, S. D., Darling, N., Mounts, N. S., & Dornbusch, S. M. (1994). Over- time changes in adjustment and competence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5, 754-770.
- 40) Winch, D. B., & Carment, D. W. (1988). Intention to migrate: A psychological analysi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8, 727-736.
- 41) Wolchik, S. A., Sandler, I. N., & Braver, S. L. (1987). Social support : Its assessment and relation to children's adjustment. In N. Eisenberg (Ed.), *Contemporary topic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319-348. New York : Wiley.
- 42) Wohlwill, J.F. (1984). What are sensation seekers seeking?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7, 453.
- 43) Zuckerman, M. (1974). The sensation seeking motive. In B. A. Maher (Ed.),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 (Vol. 7, pp. 79-148). New York: Academic Press.
- 44) Zuckerman, M. (1979a). *Sensation seeking: Beyond the optimal level of arousal*. Hillsdale, NJ: Erlbaum.
- 45) Zuckerman, M. (1979b). Traits, states, situations and uncertainty. *Journal of Behavioral Assessment*, 1, 43-54.
- 46) Zuckerman, M. (1994). Behavioral expressions and biosoci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NY : Cambridge Uni. Press.
- 47) Zuckerman, M., Ball, S. A. & Black, J. (1990). Influences of sensation seeking, gender, risk appraisal, and situational motivation on smoking. *Addictive Behaviors*, 15, 209-220.
- 48) Zuckerman, M., Eysenck, S. B. G., & Eysenck, H. J. (1978). Sensation seeking in England and America: Cross-cultural, age, and sex comparis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139-149.
- 49) Zuckerman, M., & Neeb, M. (1980). Demographic influences in sensation seeking and expressions of sensation seeking in religion, smoking, and driving habi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 197-206.
- 50) Zuckerman, M., Tushup, R., & Finner, S. (1976). sexual attitudes and experience : Attitude and personality correlates and changes produced by a course in sexuali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4, 7-19.